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대한 比較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¹

金容辰^{1*}

对『孫真人千金方』与『備急千金要方』之目次的比較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¹

金容辰^{1*}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又名 『千金方』, 被譽為中國最早的臨床百科全書. 近來, 在中國和日本發現了 『千金方』的新版本, 如 『孫真人千金方』, 『真本千金方』等, 並得到了簡略的研究. 但是, 在國內對 『孫真人千金方』尚無所研究, 所以筆者就 『孫真人千金方』和 『備急千金要方』的目次進行了比較, 對兩本書籍的異同點進行了研究. 結果發現, 『備急千金要方』較 『孫真人千金方』的內容, 從體例上看更為簡單與明瞭, 提示宋代校正醫書局所校訂的部分, 並非都是正確的.

key words : 『孫真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目次, 比較.

1. 緒論

『備急千金要方』은 唐代 孫思邈이 中國 最初로 臨床 百科全書의 形式으로 著述한 것으로 『千金方』이라 簡稱한다. 이는 唐以前 歷代著作의 主要醫論, 醫方, 診法, 鍼灸 등 東洋醫學 基本內容을 包括하고, 또한 處方, 用藥 등의 具體의인 方法과 服餌, 食養, 導引, 按摩 등의 養生法을 말하였으며, 심지어는 醫師가 어떻게 醫學을 배워야하고, 어떠한 道德과 品格을 갖추어야 하느냐하는 問題까지도 論述하였다¹⁾.

뿐만 아니라 『備急千金要方』의 特徵은 婦人과 小兒를 重視하여 婦人과 小兒 部分을 먼저 言及하고, 雜病에

있어서 臟腑를 綱으로 삼고 病症을 目으로 삼아 臟腑 發病에 있어서 特徵의이며, 針灸方面에서 甄權의 『明堂』을 保存하였고, 佛敎의 四大, 四百四病 등의 內容과 道敎의 咒客忤法, 治瘧符法 등의 內容이 있어 佛敎와 道敎의 影響을 많이 받은 점 등이다²⁾.

이러한 『備急千金要方』에 대하여 근래에 中國과 日本에서 새로운 板本으로 『孫真人千金方』과 『真本千金方』 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簡略한 研究가 進行되었다.

『孫真人千金方·校訂說明』에서 “『孫真人千金方』은 淸 嘉慶四年(1799年)에 藏書家인 黃丕烈이 西山堂이라는 書店에서 發見한 책으로 겨우 二十卷(卷一에서 五까지, 卷十一에서 卷十五까지, 卷二十一에서 卷三十까지)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明 板本이었고, 第二十卷은 없었다. 黃丕烈이 이 책을 얻은 후에 卷六에서 卷十까지, 卷十六에서 卷十九까지 九卷을 元版으로 고쳤으나 여전히 第二十卷은 없어 明版으로 補充하였다. 이 板本은 후에 陸心源이 皕宋樓에 所藏하다가, 淸 光緒三十三年(1907年) 일본사람이 購買하여 東京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42-280-2626, E-mail : king@dju.kr
접수일(2011년 4월27일), 수정일(2011년 5월10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20일)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00024367)”

1)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215.

2) 張燦理. 中醫古籍文獻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85.

靜嘉堂文庫에 所藏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1974년 日本사람이 中國의 馬繼興에게 影印本을 선물하여 주었다. …… 『儀顧堂題跋』에서 『孫真人千金方』의 卷과 篇의 順序에 대하여 研究한 結果, 校正醫書局的 校訂을 거친 『備急千金要方』과 日本 江戸醫學館의 板本을 影印한 宋刻本과 比較해 보면 編次 뿐만 아니라 글자와 使用한 方藥도 많이 다르므로 治平本校勘記에서 言及한 唐本과 많은 부분에서 附合되어 孫思邈의 眞本일 可能性이 높다.”³⁾고 하였다. 『孫真人千金方』의 刊行年代에 대하여 蘇禮는 『新雕孫真人千金方』의 刊行은 林億의 이전 또는 林億과 유사한 時期로 林億의 校訂本이 나타나기 이전일 것이라고 하였다⁴⁾.

1989년에 日本 大阪市の 오리엔트(오리엔트)出版社에서 影印한 東洋善本醫學叢書 第二輯에 光緒三十三年(1907年)에 日本에 傳播된 板本과 『千金要方』, 『眞本千金要方』 및 元版『千金翼方』이 포함되어 있다⁵⁾.

『備急千金要方』은 高保衡, 孫奇, 林億 등이 記錄한 『新校備急千金要方序』에서 “乃迷農黃之旨, 發明歧擊之學, 經授扁鵲之難, 方采倉公之禁, 仲景黃素, 元化綠帙, 葛仙翁之必效, 胡居士之經驗, 張苗之藥對, 叔和之脈法, 皇甫謐之三部, 陶隱居之百一, 自餘郭王 範汪 僧坦 阮炳, 上極文字之初, 下訖有隋之世, 或經或方, 無不采摭, 集諸家之所秘要, 去衆說之所未至, 成書一部, 總三十卷, 目錄一通, 藏腑之論, 針艾之法, 癰證之辨, 食治之宜, 始婦人而次嬰孺, 先腳氣而後中風傷寒癰疽 消渴水腫, 七竅之病, 五石之毒, 備急之方, 養性之術, 總篇二百三十二門, 合方論五千三百首, 莫不全可驗, 四種兼包, …… 得以正其訛謬, 補其遺佚, 文之重複者削之, 事之不倫者緝之, 編次類聚, 朞月功至, 綱領雖有所立, 文義猶或疑阻, 是用端本以正末, 如素問九墟靈樞甲乙太素巢源諸家本草, 前古脈書, 金匱玉函, 肘後備急, 謝士秦刪繁方, 劉涓子鬼遺論之類, 事關所出, 無不研核, 尚有所闕, 而又流以討源, 如五鑿經, 千金翼, 崔氏纂要, 延年秘錄, 正元廣利, 外臺秘要, 兵部手集, 夢得傳信之類, 凡所孤別, 無不考理, 互相質正, 反覆稽參, 然後遺文疑義, 煥然悉明, 書雖是舊,

3) 孫思邈. 孫真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
4) 蘇禮. 『新雕孫真人千金方』考略. 北京. 中華醫史雜誌. 1995. 第3期. p.177.
5) 蘇禮. 『新雕孫真人千金方』考略. 北京. 中華醫史雜誌. 1995. 第3期. p.176.

用之惟新, 可以濟函靈裨乃聖好生之治, 可以傳不朽.”⁶⁾라고 하여 『素問』, 『靈樞』, 『甲乙』, 『太素』, 『本草』 등으로부터 『金匱玉函』, 『肘後備急方』 등의 서적을 모두 參考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빠진 것을 補充하고 重複되는 부분은 削除하고 理致에 맞지 않는 것은 理致에 맞게 고쳐 책을 보는데 더욱 새롭고 정확하게 하여 오랫동안 保存할 가치가 있게 하였다고 하여, 校正醫書局에서 校訂을 한 板本이라는 것을 明確하게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千金要方』의 여러가지 板本에서 『孫真人千金方』은 著者が 記錄한 眞面目을 볼 수 있는 것이고, 『備急千金要方』는 校正醫書局에서 校訂하여 새롭게 고친 것으로 두 板本사이에는 각각의 特徵이 있다. 筆者는 이에 대하여 두 板本の 目次를 통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研究에 使用된 板本은 李景榮, 蘇禮, 焦振廉이 校訂하고 1996년 北京의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出刊한 『孫真人千金方』과 江戸醫學影北宋本을 1995년 北京의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한 『備急千金要方』이다.

2.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比較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的 差異를 比較하여 두 板本사이의 特徵을 알아보는 것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目次에 대한 比較圖表를 아래와 같이 만들고 그 特徵을 簡單하게 考察하는 方式으로 研究를 進行하였다.

1) 第一卷 目次比較

표 1. 卷一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一
習業第一
精誠第二
理病第三
診候第四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

處方第五
用藥第六
合和法第七
服餌法第八

備急千金要方卷一諸論

大醫習業第一
大醫精誠第二
治病略例第三
診候第四
處方第五
用藥第六
合和第七
服餌第八
藥藏第九

卷一에 대하여 『孫真人千金方』에서는 習業, 精誠, 理病, 診候, 處方, 周藥, 合和法의 여덟 편으로 구성되었으나,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大醫習業, 大醫精誠, 治病略例, 診候, 議處方, 用藥, 合和, 服餌, 藥藏의 아홉 편으로 구성되어 藥藏의 한 편이 더 많게 되어 있으며, 大醫라는 修飾語를 붙여 醫師들이 大醫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強調하였다.

『孫真人千金方』의 用藥第六의 內容의 一部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藥藏第九를 따로 하나의 篇으로 構成하였으니 이는 藥物을 잘 貯藏하는 것도 重要的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第二卷 目次比較

표 2. 卷二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二婦人上

求子方第一 轉女爲男
婦人有胎候惡阻方第二
養胎方第三 易產
妊娠病方第四 心腹痛
產難第五
子死腹中第六
逆生第七
胞衣不出方下第八 下乳

備急千金要方卷二婦人方上

求子第一 轉女爲男附
妊娠惡阻第二 辨男女 辨將產附
養胎第三 禁忌 滑胎附
妊娠諸病第四 胎動及數墮胎 漏胞 子煩 心腹腰痛及脹滿 傷寒
瘧病 下血 小便病 下痢 水腫
產難第五 運悶附

子死腹中第六 得病須去胎附
逆生第七
胞衣不出第八
下乳第九

卷二에 대하여 『孫真人千金方』에서는 求子方第一 轉女爲男 婦人有胎候惡阻方第二 養胎方第三 易產 妊娠病方第四 心腹痛 產難第五 子死腹中第六 逆生第七 胞衣不出方下第八 下乳의 여덟 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求子第一 妊娠惡阻第二 養胎第三 妊娠諸病第四 產難第五 子死腹中第六 逆生第七 胞衣不出第八 下乳第九의 아홉 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해당 편에 轉女爲男 易產 心腹痛 下乳 등의 작은 제목을 간단하게 달았지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매 편마다 작은 제목 또는 附錄을 달아 주어 더욱 많은 內容이 追加되었음을 알 수 있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胞衣不出方下第八에 下乳를 附錄으로 붙여 놓았지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下乳를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第三卷 目次比較

표 3. 卷三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三產後婦人中

治產後虛損第一
產後虛煩悶方第二
治產後中風方第三
治產後心腹痛方第四
治產後惡露第五
治產後下痢方第六
治產後小便數方第七
雜方第八

備急千金要方卷三婦人方中

虛損第一 盜汗附
虛煩第二
中風第三 心虛驚悸附
心腹痛第四
惡露第五 血瘕附
下痢第六
淋渴第七
雜治第八

4) 第四卷 目次比較

표 4. 卷四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四婦人下
補益第一
月水不通方第二
療崩中赤白帶下諸方第三
療女人月經不調方第四
備急千金要方卷四婦人下
補益第一
月水不通第二 癥 瘕附
赤白帶下崩中漏下第三
月經不調第四

卷三과 卷四에서의 目次는 治産後虛損第一 産後虛煩悶方第二 治産後中風方第三 治産後心腹痛方第四 治産後惡露第五 治産後下痢方第六 治産後小便數方第七 雜方第八 그리고 補益第一 月水不通方第二 療崩中赤白帶下諸方第三 療女人月經不調方第四로 서로 유사하게 되어 있다.

단지 『孫眞人千金方』에서 産後와 治 그리고 療라는 修飾語를 붙여 놓았고, 아울러 處方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方이라는 修飾語를 붙이기도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第五卷 目次比較

표 5. 卷五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五少小嬰孺
序例第一 乳母
新生孩兒初出腹方第二 變蒸法附
療驚癇病方第三
療客忤方第四
療癰疽瘰癧方第五
治傷寒方第六
療咳嗽方第七
療癥結方第八
孩兒雜方第九
備急千金要方卷五上少小嬰孺方上
序例第一 擇乳母附
初生出腹第二 拭兒口 治生不作聲 斷臍 衣兒 裹臍 甘草湯 朱蜜 哺乳 浴兒法并方 鵝口 治生轉死 相兒壽夭
驚癇第三 中風附
客忤第四 魅病夜啼 驚啼附
傷寒第五 寒熱溫瘧附

備急千金要方卷五上少小嬰孺方下

咳嗽第六
癥結脹滿第七 霍亂附
癰疽瘰癧第八
小兒雜病第九

『孫眞人千金方』에서는 孫眞人千金方卷第五 少小嬰孺로 기록한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卷五上을 少小嬰孺方의 上下로 나누어, 上에서는 주로 風寒의 外感病을 記錄하였고 下에서는 주로 小兒雜病을 記錄하여 더욱 자세하게 分類하였다.

卷五에 대하여 두 書籍의 目次가 序例第一乳母 新生孩兒初出腹方第二變蒸法附 療驚癇病方第三 療客忤方第四 療癰疽瘰癧方第五 治傷寒方第六 療咳嗽方第七 療癥結方第八 孩兒雜方第九로 되어 있다. 다만 『孫眞人千金方』에서는 乳母와 變蒸法을 간단하게 附錄으로 달았지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擇乳母附와 拭兒口 治生不作聲 斷臍 衣兒 裹臍 甘草湯 朱蜜 哺乳 浴兒法并方 鵝口 治生轉死 相兒壽夭라고 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였으나 變蒸을 예로 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孫眞人千金方』에서는 療와 治 그리고 方이라는 修飾語를 달아 일반 論述과 治療에 대하여 논술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특히 『孫眞人千金方』에서는 新生孩兒初出腹方第二 變蒸法附라고 한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初生出腹第二 拭兒口 治生不作聲 斷臍 衣兒 裹臍 甘草湯 朱蜜 哺乳 浴兒法并方 鵝口 治生轉死 相兒壽夭라고 하였고 『備急千金要方』에서 題目은 簡單하지만 구체적인 內容은 明確하게 기록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孫眞人千金方』에서의 療癰疽瘰癧方第五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疽瘰癧第八로 순서를 바꾸었는데, 序例로 시작하여 아이가 出生하여 驚癇 客忤 등의 위급한 疾患을 먼저 언급하고 傷寒 咳嗽의 呼吸器疾患, 癥結脹滿의 消化器疾患, 癰疽瘰癧의 外科疾患, 小兒雜病 등으로 系統的으로 紀錄하려고 순서를 바꾸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6) 第六卷 目次比較

표 6. 卷六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六
面方第一 [7]
[7]方第三 舌[7]
唇方第五 齒方第[7]
喉方第七 耳方第八
備急千金要方卷六上七竅病上
目病第一 鼻病第二 口病第三 香附 舌病第四 唇病第五 甲煎附
備急千金要方卷六上七竅病下
齒病第六 喉病第七 咽附 耳病第八 面病第九

『孫真人千金方』에서는 面方第一, [7], [7]方第三, 舌[7], 唇方第五, 齒方第[7], 喉方第七, 耳方第八으로 面, 舌, 唇, 齒, 喉, 耳의 順序로 言及하였으나,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卷六을 上下로 나누고 卷第六上 七竅病上에 目病, 鼻病, 口病 香附, 舌病, 唇病 甲煎附로 되어 顔面의 中央部分을 言及하였고, 卷第六下 七竅病下에 齒病, 喉病 咽附, 耳病, 面病으로 되어 얼굴에서 깊은 咽喉와 귀 그리고 얼굴 전체를 言及하였다.

『備急千金要方』에서 言及한 內容들은 唐代 醫學 知識의 發達로 인하여 『孫真人千金方』의 內容보다 많은 部分이 追加되었다.

특히 甲煎이라는 새로운 方法을 追加하였는데, 甲煎에 대하여 藏器曰 甲煎은 以諸藥及美果花를 燒灰和蠟成 口脂라 所主與甲香略同하고 三年者良이라(藏器曰: 甲煎은 諸藥과 美果와 花를 燒灰한 것과 蜜蠟으로 口脂(臘脂)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甲香과 비슷한 主治가 있으며 三年된 것이 좋다.)고 하였고 時珍曰 甲煎은

7) 『孫真人千金方』에서 글자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것은 [7]로 글자가 확실하게 있지만 原本에 글자가 없는 것은 □로 표시하였다.

以甲香同沉麝諸藥花物治成하여 可作口脂及焚蒸也라(時珍曰 甲煎은 甲香과 沈香 麝香 등의 諸藥을 넣고 花物하게 하여 만드는 것으로 口脂와 焚蒸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⁸⁾.

『孫真人千金方』의 內容에서 宋代에 맞는 새로운 內容으로 果敢하게 追加한 部分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部分이 오히려 『孫真人千金方』의 著述意圖와는 다르게 認識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7) 第七卷 目次比較

표 7. 卷七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七
論風毒狀第一次第有十八章 湯方第二 散方第三 酒方第網 膏方第五
備急千金要方卷第七風毒脚氣方
論風毒狀第一 湯液第二 裹腳方附 諸散第三 酒醴第四 諸膏第五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論風毒狀第一次第有十八章, 湯方第二, 散方第三, 酒方第網, 膏方第五라고 한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論風毒狀第一, 湯液第二 裹腳方附, 諸散第三, 酒醴第四, 諸膏第五라고 하여 題目에 있어 약간의 修正만 하였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記錄이 佚失되어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考察할 수 없다.

8) 第八卷 目次比較

표 8. 卷八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八
雜風狀第一 癱節風第二 風痹第三 口喎第四 尸厥失音第五 口噤

8) <http://www.zdic.net/cd/ci/5/ZdicE7Zdic94ZdicB2176395.htm>

角弓反張第六
大風第七

備急千金要方卷第八治諸風方

論雜風狀第一 痺瘧附
諸風第二 風熱 風寒附
賦風第三 曆節附
偏風第四 猥退 緩弱 孿急 腰脚痛附
風痺第五
風懿第六 口噤 失音 口喎 尸厥附
角弓反張第七
風痺第八

『孫真人千金方』의 風痺第三이 『備急千金要方』의 風痺第八로, 『孫真人千金方』의 口喎第四와 尸厥失音第五가 『備急千金要方』의 風懿第六 口噤 失音 口喎 尸厥附로, 『孫真人千金方』의 角弓反張第六이 『備急千金要方』의 角弓反張第七로 바뀌었다. 이러한 篇次와 篇題의 差異는 『孫真人千金方』에서는 症狀으로 疾病을 命名한 것으로 症狀이 發生하는 部位인 四肢(雜風, 歷節, 風痺), 官竅(口喎, 尸厥失音)에서 全身(角弓反張, 大風)의 順序로 敍述한 것이지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疾病의 原因인 風을 강조하였으며 症狀의 輕重에 따라 敍述한 점이 다르다.

『孫真人千金方』이나 『備急千金要方』에서의 疾病分類方法은 어느 것으로 하여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孫真人千金方』의 內容을 校訂하는 立場에서 疾病分類順序를 바꾸었다고 하겠다.

9) 第九卷 目次比較

표 9. 卷九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九傷寒上

傷寒例第一
辟溫方第二
傷寒膏第三
發汗散第四
發汗湯第五
發汗丸第六
發汗後不醒醒第七

備急千金要方卷第九傷寒方上

傷寒例第一
辟溫第二 治瘧霧氣附
傷寒膏第三

發汗散第四
發汗湯第五
發汗丸第六
宜吐第七
宜下第八
發汗吐下後第九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傷寒例, 辟溫方, 傷寒膏, 發汗散, 發汗湯, 發汗丸, 發汗後不醒醒으로 傷寒에 關聯된 部分이다. 『孫真人千金方』의 發汗後不醒醒第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宜吐第七, 宜下第八, 發汗吐下後第九로 바꾸어 記錄하였다. 아울러 『備急千金要方』의 宜吐, 宜下는 卷十에서 記錄하였다.

『孫真人千金方』의 發汗後不醒醒第七과 『備急千金要方』의 發汗吐下後第九는 두 種類의 書籍에서 따로 記錄된 部分이다.

10) 第十卷 目次比較

표 10. 卷十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十傷寒下

傷寒宜吐方第一
傷寒宜下方第二
雜治方第三
手足腫方第四
黃疸黃汗方第五
百合病第六
狐惑病第七
江南溪證第八
溫瘧第九

備急千金要方卷第十傷寒方下

傷寒雜治第一 熱毒 嘔噦 攻手足 毒腫 斑出 豌豆瘡 鼻衄 喉閉
口苦 口乾 下痢 虛腫 汗不止 盜汗附
勞復第二 食忌 陰陽易 理髮附
百合第三
傷寒不發汗變成狐惑第四
傷寒發黃第五
溫瘧第六
溪毒證第七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傷寒宜吐方, 傷寒宜下方, 雜治方, 手足腫方, 黃疸黃汗方, 百合病, 狐惑病, 江南溪證, 溫瘧을 記錄하여 傷寒 治療法으로 汗吐下三法 및 기타 治療方을 언급하고 그 뒤에 百合病, 狐惑病 등의 『金匱要略』에 나타나는 雜病을 함께 記錄하였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傷寒雜治(熱毒 嘔噦 攻手足 毒腫 斑出 豌豆瘡 鼻衄 喉閉 口苦 口乾 下痢 虛腫 汗不止 盜汗附), 勞復(食忌 陰陽易 理髮附), 百合, 傷寒不發 汗變成孤惑, 傷寒發黃, 溫瘧, 諸溪毒證으로 『孫眞人千金方』보다 많은 症狀들을 附錄으로 記錄하였다. 아울러 『孫眞人千金方』의 江南溪口證第□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溪毒證第七으로 하여 江南이라는 地域의 人名稱을 削除하여 病名을 明確하게 하려고 하였다.

『孫眞人千金方』에서는 傷寒에 대한 言及이 卷九와 卷十에 걸쳐 나타나지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卷九에서 傷寒에 대하여 言及하고 卷十에서는 주로 『金匱要略』에 나타나는 雜病에 대한 言及을 하여 더욱 명확한 分類를 하였다.

11) 第十一卷 目次比較

표 11. 卷十一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十一
肝臟脈論第一
肝臟虛實方第二
肝勞第三
治筋極第四
治堅癥積聚及婦人血瘦等方第五
備急千金要方卷十一-肝臟
肝臟脈論第一
肝虛實第二 肝臟俱虛實附
肝勞第三
筋極第四 筋虛實附

『孫眞人千金方·治堅癥積聚及婦人血瘦等方第五』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削除하였다. 다만 이와 유사한 部分으로는 『備急千金要方·卷三婦人方中·惡露第十四 血瘦附』와 『備急千金要方·卷四婦人方下·月水不通第十九 癥瘕附』와 『備急千金要方·卷二十八脈法·五臟積聚第七』 등이 있지만 內容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宋代 校正醫書局에서 校訂할 때에 해당 疾病에 대하여 正確하게 認識을 하게 되어 각각 나누어 記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2) 第十二卷 目次比較

표 12. 卷十二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十二
膽府脈論第一
膽虛實第二
咽門論第三
髓虛實第四
風虛雜補方第五
治吐血方第六
治萬病諸方第七
備急千金要方卷十二-膽腑方
膽府脈論第一
膽虛實第二 虛煩不得眠附
咽門論第三
髓虛實第四
風虛雜補酒煎第五 食治方附
吐血第六
萬病丸散第七

여기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다만 第二에서 다른 臟腑에서는 臟腑具虛實이라고 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 虛煩不得眠附라고 附錄을 달은 것이 특징이 있다. 아울러 『孫眞人千金方·風虛雜補方第五』를 『備急千金要方·虛雜補酒煎第五 食治方附』라고 하여 處方의 運用에 있어서 酒煎을 하여야 하는 方法과 食治方을 區分하여 仔細하게 記錄하였다.

13) 第十三卷 目次比較

표 13. 卷十三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十三
心臟脈論第一
心虛實第二
心勞方第三
脈極方第四
脈虛實方第五
心腹痛方第六
胸痺方第七
頭面風病方第八 髮落 白禿 頭眩 面風 髮白 生髮
備急千金要方卷十三-心臟方
心臟脈論第一
心虛實第二 心小腸俱虛實附
心勞第三
脈極第四
脈虛實第五
心腹痛第六
胸痺第七
頭面風第八 頭眩 面風 髮白 生髮 白赤禿

「頭面風病 第八」에서 『孫真人千金方』에서는 髮落白禿 頭眩 面風 髮白 生髮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頭眩 面風 髮白 生髮 白赤禿라고 하여 若干의 차이점이 있다.

14) 第十四卷 目次比較

표 14. 卷十四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十四
小腸腑脈論第一
小腸腑虛實第二
舌論第三
風眩方第四
治風癩方第五
心風驚悸方第六
好忘方第七
備急千金要方卷十四小腸腑方
小腸腑脈論第一
小腸虛實第二
舌論第三
風眩第四
風癩第五 狂 邪針灸圖訣附
心風驚悸第六
好忘第七

『孫真人千金方』에서 사용된 治와 方과 같은 修飾語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削除하여 전체적인 題目에 一貫性이 있게 하였고, 「風癩第五 狂 邪針灸圖訣附」에서는 狂 邪針灸圖訣附을 附錄으로 記錄하였으나 『備急千金要方』의 原文內容에는 鍼灸法으로만 되어 있어 目次와 原文이 달라 어디선가 錯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第十五卷 目次比較

표 15. 卷十五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十五
脾藏脈論第一
治脾虛實方第二 消食
脾勞第三
肉極第四 秘澀
肉虛實論第五
熱痢方第六
冷痢方第七

備急千金要方卷十五脾臟上

脾藏脈論第一
脾虛實第二 脾胃俱虛實消食附
脾勞第三
肉極第四
肉虛實第五
秘澀第六 大便失禁 大小便不通附

備急千金要方卷十五脾臟下

熱痢第七
冷痢第八
疳濕痢第九 月蝕瘡附
小兒痢第十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卷十五를 脾臟上과 脾臟下의 두 篇으로 나누었으며 脾臟下에서는 痢와 關聯되는 部分을 모아 놓았다.

『孫真人千金方·肉極第四 秘澀』에서 秘澀은 原文을 살펴보면 肉虛實論第五의 뒤에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治脾虛實方第二 消食」과 「肉極第四 秘澀」에서 消食과 秘澀의 附錄을 달았는데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 「脾虛實第二 脾胃俱虛實消食附」와 「秘澀第六 大便失禁 大小便不通附」로 하여 그 內容을 補充하였다. 아울러 「疳濕痢第九 月蝕瘡附」와 「小兒痢第十」는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는 病證에 대한 認識이 唐代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醫學의 發展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孫真人千金方卷第十六』에 疳痢第七과 小兒下痢方第八에서 痢疾에 대하여 言及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卷十五脾臟方下』에서는 熱痢第七, 冷痢第八, 疳濕痢第九 月蝕瘡附, 小兒痢第十에서 痢疾 部分을 모았으며 胃病에서 言及하였던 疳痢第七과 小兒下痢方第八을 脾臟下로 옮겨 痢疾의 本疾에 대한 認識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部分이다.

16) 第十六卷 目次比較

표 16. 卷十六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十六
胃府脈論第一
胃虛實第二
喉嚨論第三
反胃論第四 □□□□

嘔逆吐第五
食噎第六
疝痢第七
小兒下痢方第八

備急千金要方卷十六胃腑方

胃腑脈論第一
胃虛實第二
喉嚨論第三
反胃第四 酢 咽附
嘔吐噦逆第五 惡心附
噎塞第六 哽附
脹滿第七
痞冷積熱第八 寒疝骨蒸附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胃府脈論, 胃虛實, 喉嚨論, 反胃論, 嘔逆吐, 食噎, 疝痢, 小兒下痢方으로 되어 있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反胃論, 嘔逆吐을 反胃(酢 咽附), 嘔吐噦逆(惡心附)으로 바꾸어 크게 다르지 않았다.

17) 第十七卷 目次比較

표 17. 卷十七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十七

肺藏脈論第一
肺虛實第二
肺勞方第三
氣極方第四
治積氣第五
肺痿方第六
肺癰方第七
飛尸疰方第八

備急千金要方卷十七肺藏方

肺藏脈論第一
肺虛實第二 肺與大腸俱虛俱實附
肺勞第三
氣極第四 氣虛實附
積氣第五 七氣 五藏 奔豚附
肺痿第六
肺癰第七
飛尸鬼疰第八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肺藏脈論, 肺虛實, 肺勞方, 氣極方, 治積氣, 肺痿方, 肺癰方, 飛尸疰方으로 되어 있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肺虛實에 肺與大腸俱虛俱實附가 있고, 氣極에 氣虛實附를 追加한 것 이외에 별 差異는 없다.

18) 第十八卷 目次比較

표 18. 卷十八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十八

大腸腑脈論第一
大腸虛實第二
肛門論第三
皮虛實第四
咳嗽方第五
痰飲方第六
蛔蟲方第七 小兒病寸白蟲附

備急千金要方卷十八大腸方

大腸腑脈論第一
大腸虛實第二
肛門論第三
皮虛實第四
咳嗽第五
痰飲第六
九蟲第七 濕鬮附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大腸腑脈論, 大腸虛實, 肛門論, 皮虛實, 咳嗽方, 痰飲方, 蛔蟲方(小兒病寸白蟲附)으로 되어 있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蛔蟲方(小兒病寸白蟲附)을 九蟲(濕鬮附)으로 名稱만 바꾸었다.

19) 第十九卷 目次比較

표 19. 卷十九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十九

腎藏脈論第一
腎虛實第二
腎勞第三
精極第四
骨極第五
骨虛實第六
腰痛第七
補腎第八

備急千金要方卷十九腎藏方

腎藏脈論第一
腎虛實第二 腎與膀胱俱虛實附
腎勞第三
精極第四 精虛實附
骨極第五
骨虛實第六
腰痛第七
補腎第八

두 書籍에서 腎藏脈論, 腎虛實, 腎勞, 精極, 骨極, 骨虛實, 腰痛, 補腎의 順序로 記錄하였다. 다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腎虛實에 腎與膀胱俱虛實附를, 精極에 精虛實附를 附錄으로 記錄한 부분만이 다르다.

20) 第二十卷 目次比較

표 20. 卷二十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
膀胱脈論第一
膀胱虛實第二
胞囊論第三
三焦脈論第四
三焦虛實第五
霍亂第六
雜補方第七
耳方第八
備急千金要方卷二十膀胱方
膀胱腑脈論第一
膀胱虛實第二
胞囊論第三
三焦脈論第四
三焦虛實第五
霍亂第六
雜補第七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膀胱脈論, 膀胱虛實, 胞囊論, 三焦脈論, 三焦虛實, 霍亂, 雜補方, 耳方으로 구성되었으나,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耳方이 빠져 있다. 그러나 『孫真人千金方』 卷二十은 佚失된 部分이므로 그 內容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단지 耳를 膀胱에서 言及한 것이 理致에 맞지 않는 것 같으나, 『備急千金要方』에서 다른 部分에서 耳方第八과 類似한 部分도 찾아보지 못하였다.

21) 第二十一卷 目次比較

표 21. 卷二十一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一
消渴方第一
療虛煩悶不得眠方第二
療淋結方第三
療諸尿血方第四
療水腫方第五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一消渴淋閉尿血水腫
消渴第一 消中 強中 渴利 不渴而利 渴兼他病附

淋閉第二 遺尿 失禁 尿狀附
溺血第三
水腫第四

『孫真人千金方』에 있는 「療虛煩悶不得眠方第二」가 『備急千金要方』에는 없고 이와 유사한 附錄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備急千金要方』에 「消渴第一 消中 強中 渴利 不渴而利 渴兼他病附」과 「淋閉第二 遺尿 失禁 尿狀附」에서 附錄으로 消渴과 小便에서의 여러 가지 內容들을 記錄하고 있다.

22) 第二十二卷 目次比較

표 22. 卷二十二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二
序論第一
果實第二
菜部第三
米食部第四
鳥獸部第五
備急千金要方卷二十六食治方
序論第一
果實第二
菜蔬第三
穀米第四
鳥獸第五 蟲魚附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二』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六食治方』으로 記錄하여 卷의 位置를 바꾸어 놓았다. 각 篇의 內容도 「菜部第三」을 「菜蔬第三」으로, 「米食部第四」를 「穀米第四」로, 「鳥獸部第五」를 「鳥獸第五 蟲魚附」로 ‘部’字를 一括的으로 削除하고 日常的인 用語로 바꾸어 記錄하였다.

23) 第二十三卷 目次比較

표 23. 卷二十三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三
丁腫方第一
癰癤方第二
發背方第三
療丹毒諸方第四
療癰瘡方第五 俗呼爲風屎 亦名風尸
療疽方第六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二癰腫毒方

疔腫第一
癰疽第二 毒腫 石癰附
發背第三
丹毒第四 小兒丹附
癰疹第五
癰疽第六 惡肉 赤脈 惡核 癰病 附骨疽 賊風 風熱毒 洪爛瘡
肥瘡 浸淫瘡 癩瘡 疥瘡 骨疽 風疽 石疽 瘡因風致腫 惡露瘡
反花瘡 代指 指疽 逆臚 瘰 尸腳 割甲侵肉附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三』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二癰腫毒方』으로 記錄하여 卷의 位置를 바꾸어 놓았다.

「疔腫方第一」을 「疔腫第一」로 「癰癰方第二」를 「癰疽第二 毒腫 石癰附」로 하여 用語의 正確性을 기하였고 「癰疽第六」에서는 惡肉 赤脈 惡核 癰病 附骨疽 賊風 風熱毒 洪爛瘡 肥瘡 浸淫瘡 癩瘡 疥瘡 骨疽 風疽 石疽 瘡因風致腫 惡露瘡 反花瘡 代指 指疽 逆臚 瘰 尸腳 割甲侵肉附를 追加하여 各種 皮膚疾患을 仔細하게 說明하였다.

24) 第二十四卷 目次比較

표 24. 卷二十四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四

九漏方第一
腸癰方第二 妬乳 乳癰附
腸痔方第三
疥癬方第四 代指 癰瘍 疔 白癩附
大風惡疾方第五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三痔漏方

九漏第一 癰癰附
腸癰第二 妬乳 乳癰附
五痔第三
疥癬第四 癰易 白殿 赤疵 疔目附
惡疾大風第五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四』를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三痔漏方』으로 記錄하여 卷의 位置를 바꾸어 놓았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모두 方이라는 修飾語를 붙여 해당 病症에 대한 處方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疥癬第四」에는 代指 癰瘍 疔 白癩附라고 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易 白殿 赤疵 疔目附라고 하여 약간 다르게 記錄하였다. 癰易을 癰瘍으로 고친 『備急千金要方』의 板本도 여러 가지 있었다.

25) 第二十五卷 目次比較

표 25. 卷二十五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五雜方

解食毒第一
百藥毒第二
解五石毒第三
蠱毒方第四
胡臭漏腋第五
脫肛方第六
癰瘤方第七
瘰癧方第八 妒精 陰瘡 小兒瘰

備急千金要方卷二十四解毒雜治方

解食毒第一
解百藥毒第二
解五石毒第三
蠱毒第四論
胡臭漏腋第五
脫肛第六
癰瘤第七
癰病第八 陰瘡 妒精 瘡附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五雜方』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四解毒雜治方』으로 記錄하여 卷의 位置를 바꾸어 놓았다.

「百藥毒第二」를 「解百藥毒第二」로 바꾸어 前三篇이 解毒하는 內容이라는 것을 正確하게 하였고, 『孫真人千金方』에서 處方을 記錄하여 方이라고 한 것을 삭제하였다.

26) 第二十六卷 目次比較

표 26. 卷二十六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二十六 備急

卒死第一 魘 中惡 自縊 渴乏 凍 醉酒
蛇毒方第二 蝎 蠅 射公 貓鬼 狗咬
被打方第三 竹木刺 從高墮下 惡刺 著漆
火瘡第四 灸針 金瘡 哽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五備急方

卒死第一 魘 中惡 自縊 喝 溺 凍 醉酒附
蛇蟲等毒第二 虎 蠍 蜂 蠅 射工 沙虱 蝨 水毒 貓鬼 馬咬 狗毒附
諸般傷損第三 從高墮下 竹木刺 惡刺 著漆附
火瘡第四 灸 金瘡 毒矢附

『孫眞人千金方卷二十六 備急』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五備急方』으로 記錄하여 卷의 位置를 바꾸어 놓았다.

卒死第一 魘 中惡 自縊 渴乏 凍 醉酒에서 渴乏을 渴과 溺라고 하였고, 蛇毒方第二 蝮 蠅 射公 貓鬼 狗咬에는 虎 蜂 沙虱 蛭 水毒 馬咬 獺狗毒를 추가하였고, 火瘡第四 灸針 金瘡 哽에서 哽을 毒矢라고 하여 疾病의 種類를 追加하였을 뿐만 아니라 疾病의 名稱을 明確하게 하였다.

27) 第二十七卷 目次比較

표 27. 卷二十七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二十七平脈經
平脈大法第一
診五藏脈輕重法第二
指下形狀第三
五臟脈所屬第四
分別病形狀第五
三關對治法第六
五藏積聚第七
陰陽表裏虛實第八
何時得病第九
扁鵲華佗察聲色要訣第十
診五藏六府氣絕證候第十一
診四時相反脈第十二
診脈動止投數死期年月第十三
扁鵲診諸反逆死脈第十四
診百病死生第十五
三部脈虛實決死生第十六
備急千金要方卷二十八脈法
平脈大法第一
診五臟脈輕重法第二
指下形狀第三
五臟脈所屬第四
分別病形狀第五
三關主對法第六
五臟積聚第七
陰陽表裏虛實第八
何時得病第九
扁鵲華佗察聲色要訣第十
診五臟六腑氣絕證候第十一
診四時相反脈第十二
診脈動止投數疏數死期年月第十三
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第十四
診百病死生要訣第十五
診三部脈虛實決死生第十六

『孫眞人千金方卷第二十七平脈經』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八脈法』으로 記錄하여 卷의 位置를 바꾸어 놓았다.

扁鵲診諸反逆死脈第十四와 診百病死生第十五를 扁鵲診諸反逆死脈要訣第十四와 診百病死生要訣第十五로 하여 '訣'字를 追加하여 篇名을 明確하게 하였다.

28) 第二十八卷 目次比較

표 28. 卷二十八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二十八
養性序第一
導引養性法第二
黃帝雜忌法第三
按摩法第四
調氣法第五
居處法第六
房中補益第七
服食法第八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七養性
養性序第一
道林養性第二
居處法第三
按摩法第四
調氣法第五
服食法第六
黃帝雜忌法第七
房中補益第八

『孫眞人千金方卷第二十八』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七養性』으로 記錄하여 卷의 位置를 바꾸어 놓았다.

導引養性法第二를 道林養性第二로 하여 유사한 내용이지만 題目을 바꾸었고, 黃帝雜忌法第三을 黃帝雜忌法第七로, 居處法第六을 服食法第六으로, 房中補益第七을 黃帝雜忌法第七로, 服食法第八을 房中補益第八로 하여 篇의 位置를 바꾸었다.

29) 第二十九卷 目次比較

표 29. 卷二十九의 目次 比較

孫眞人千金方卷第二十九 針灸上
明堂三人圖第一
手足三陰三陽穴流注第二
針灸禁忌法第三
五藏六府變化傍通法第四
用針略例第五
灸例第六

備急千金要方卷二十九針灸上

明堂三人圖第一
 手三陰三陽穴流注法第二(上下)
 針灸禁忌法第三
 五臟六腑傍通第四
 用針略例第五
 灸例第六
 太醫針灸宜忌第七

手足三陰三陽穴流注第二를 上下의 두 篇으로 區分하였으며, 五臟六腑變化傍通法第四를 五臟六腑傍通第四로 하여 題目을 簡潔하게 하였고, 太醫針灸宜忌第七을 새로 追加하여 內容을 豐富하게 하였다.

30) 第三十卷 目次比較

표 30. 卷三十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三十 針灸下

孔穴主對法

頭病第一 頭 面 目 鼻 耳
 舌病第二 咽喉 臂 手 胸 肩 腰 腳
 膝病第三 四肢 腹 心 陽腹鳴 不食 嘔 吐血 咳逆
 風病第四 失音 □ 大小便 淋利 黃疸 消渴 熱病 癰癩
 癰疾方第五 驚癩 水 痔漏 □ 賁豚 霍亂 尸注 中惡
 雜病方第六 婦人

備急千金要方卷三十針灸下孔穴主對法

頭面第一 項目 鼻耳 口 舌齒 咽喉附
 心腹第二 胸脇 脹滿 大小便 泄痢 消渴 水腫 不能食 嘔吐 吐血 咳逆上氣 奔豚附
 四肢第三 手 臂肘 肩背 腰脊 腳 膝附
 風痺第四 癰癩 尸厥 中惡 尸注附
 熱病第五 黃疸 霍亂 癰附
 癰癩第六 痔漏 癰疽 陰病附
 雜病第七
 婦人病第八 小兒附

『孫真人千金方卷第三十 針灸下』에 대하여 孔穴主對法이라는 題目을 다시 달아 주었고, 여기에서 여섯 篇으로 나누었다.

頭病第一 頭 面 目 鼻 耳를 頭面第一 項目 鼻耳 口 舌齒 咽喉附로 하여 咽喉를 추가 하였다. 咽喉는 舌病第二 咽喉 臂 手 胸 肩 腰 腳에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四肢第三 手 臂肘 肩背 腰脊 腳 膝附에 포함되어 그 位置를 많이 바꾸었다. 膝病第三 四肢 腹 心 陽腹鳴 不食 嘔 吐血 咳逆은 心腹第二 胸脇 脹滿 大小便 泄痢 消渴 水腫 不能食 嘔吐 吐血 咳逆上氣

奔豚附와 類似하지만 篇의 題目을 完全하게 바꾸었으며 그 內容도 많이 追加하였다. 風病第四 失音 □ 大小便 淋利 黃疸 消渴 熱病 癰癩를 熱病第五 黃疸 霍亂 癰附로, 癰疾方第五 驚癩 水 痔漏 □ 賁豚 霍亂 尸注 中惡를 風痺第四 癰癩 尸厥 中惡 尸注附로, 雜病方第六 婦人을 雜病第七과 婦人病第八 小兒附로 바꾸어 거의 대부분의 內容과 篇의 位置를 바꾸었다.

이것은 『孫真人千金方』에서 頭 舌 膝의 部位의 名稱을 頭面 心腹 四肢로 바꾸어 部位를 좀 더 正確하게 說明하려고 한 것이며, 風病 癰疾 雜病을 風痺 熱病 癰癩 雜病 婦人病의 순서로 바꾸어 疾病의 系統性에 따라 分類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겠다.

3. 考察 및 結論

『孫真人千金方』에는 佚失되었지만 目次에 나오는 部分은 卷六上七瘵病上下, 卷第七風毒腳氣方, 卷第八治諸風方, 卷第九傷寒方上, 卷第十傷寒方下, 卷十六胃腑方, 卷十七肺藏方, 卷十八大腸方, 卷十九腎藏方, 卷二十膀胱方の 十卷으로 이들은 모두 『備急千金要方』에 기재되어 있다.

『孫真人千金方』의 卷數를 『備急千金要方』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部分을 살펴보면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二』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六食治方』으로, 『孫真人千金方』의 二十三卷부터 二十六卷까지를 『備急千金要方』의 二十二卷부터 二十五卷으로,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七平脈經』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八脈法』으로, 『孫真人千金方卷第二十八』을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七養性』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 보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全體의 配列에 있어서 五臟六腑에 대한 說明이 있는 후에 雜病 癰毒 痔漏 解毒雜治 備急의 順序로 疾病을 언급하였고 그 뒤에 藥物에 대한 食治方과 養性과 診斷에 필요한 平脈을 記錄하였고 마지막으로 鍼灸治療에 대한 說明을 하여 醫學을 工夫하기 便利하게 編次를 바꾸었다고 하겠다.

『備急千金要方·新校備急千金要方例』에 “凡諸卷有一篇治數病者 今則各以類次 仍於卷首目下注云某病附焉 凡諸方與篇題各不相符者 卒急之際難於尋檢 今則

改其詮次 庶幾曆然易曉 凡諸方有一方數篇重出 主治不殊者 則去之 各有治療者 則云方見某卷某篇 凡諸篇類例之體 則論居首 脈次之 大方在前 單方次之 針灸法處末焉 緩急檢之 繁而不雜也”⁹⁾고 하여 全體的인 編次를 醫論, 脈, 處方, 鍼灸의 順序로 하였고, 각 篇에 여러 가지 疾病이 있으면 이를 分類하고 篇名과 맞지 않는 것을 다른 곳에 記錄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備急千金要方』에서 形式的인 一貫性을 갖춘다는 目的과 醫學知識水準의 向上에 따라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原著者의 意圖와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備急千金要方』에서는 한 卷의 分量이 많은 부분인 五卷과 六卷과 十五卷에서는 上下卷으로 나누어 分量을 調整하여 危急할 때에 찾아보거나 읽기에 便利하게 編纂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第二卷의 求子方第一, 婦人有胎候惡阻方第二, 養胎方第三 등의 題目이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方’字를 삭제하여 唐代 處方爲主의 敘述을 病爲主로 改編하여 疾病에 대한 認識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에서 編次와 篇題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板本이 醫學的인 認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備急千金要方』의 編次는 비교적 系統的이며 篇題 또한 나름대로의 原則이 確固하다고 하겠으니 이는 校正醫書局의 校訂을 거친 것으로 宋代에 藥物, 疾病인식, 病因, 治法 등의 方面에서 더욱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孫真人千金方』에서 孫思邈이 言及하려고 하였던 正確한 意圖를 宋代 사람들이 자신들의 醫學知識水準에 맞추어 마음대로 바꾼 점은 醫學의 發展에 과연 얼마나 좋은지에 대하여는 좀 더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4. 參考文獻

<單行本>

- 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 5.
- 2) 孫思邈. 孫真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
- 3) 張燦理. 中醫古籍文獻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85.
- 4)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215.

<學術論文>

- 1) 蘇禮. 『新雕孫真人千金方』考略. 北京. 中華醫史雜誌. 1995. 第3期. p.176, 177.5)

<其他媒體>

- 1) <http://www.zdic.net/cd/ci/5/ZdicE7Zdic94ZdicB2176395.htm>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